

M&A 전문가 박정호, 新 먹거리 찾아 ‘나홀로 CES행’

(SK텔레콤 사장)

이통사 경영자 중 유일하게 참석
글로벌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등
사업제휴·교류 등 협력방안 모색



의 비즈니스 미팅에도 나설 예정이다.

“혼자서는 1등을 할 수 없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상호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이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 신사업과 새로운 파트너회사들에 목말라 하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이 동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 가운데에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8’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는 9일부터(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에 핵심 임직원들과 함께 참가해 주요 부스를 둘러보고 글로벌 업체들과

가전 전시회인 CES는 가전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 전세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기술 경연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가전과 IT의 융합 흐름도 엿볼 수 있다. 세계적인 가전 기업, IT, 자동차 제조사 경영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들과의 사업 제휴나 교류 등을 타진할 기회도 마련된다.

올해 CES는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불참한다. 대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나홀로’ CES 행을 선택했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서다. 차세대 유·무선 통신인프라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해 열린 ‘CES 2017’도 참석한 박정호 사장은 ‘개방·협력’을 강조하며 삼성전자, 인텔,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며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알려진 박정호 사장이 이번 CES 현장에서 ICT 관련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 협력 방안을 타진하며 ‘글로벌 뉴 ICT’의 새 판 짜기를 주도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박정호 사장은 SK그룹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한국이동통신 인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서 성과를 보이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사장은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참관 당시 제스 황 엔비디아 회장을 만난 이후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CES에 불참하지만 오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올해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CES는 불참하기로 했다”라며 “기술 동향 등을 알아보고 위해 사업부서 실무 임원진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각 사업부 실무진 10여명 안팎이 CES를 참관할 예정”이라며 “실무진들이 기

술 동향과 사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도요타 시에나 미니밴.

지난해 최다판매 기념 할인혜택 ‘풍성’

도요타코리아

도요타코리아가 지난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념해 고객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도요타코리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1월 한 달간 고객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인 1만1700여대를 기록했다.

‘스마트 밸류 프로그램’은 차량의 잔존 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월 부담금을 최소화한다. 계약 종료 시점에 구매 시 보장받은 가격으로 반납, 금융 제약약 또는 전액 상환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

다는 게 도요타의 설명이다.

대상 차종은 아발론, 프리우스, 라브4 가솔린, 라브4 하이브리드, 시에나이머 선수금 30%를 내면 3년 후 차종 별로 52~58%의 잔존가치를 보장받는다.

또 계약 종료 후 재구매 시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라브4 하이브리드의 경우 58%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월 납입금 20만원대로 도요타 오너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현금 및 타 금융 프로모션과는 중복이 불가하다. 라브4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에게는 더블FMS쿠폰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

“우리 게임사가 달라졌어요~”

신작으로 주도권 잡고 기업문화도 바꾼다

‘빅3’ 대형게임사 등 대작 출시
올 모바일 게임시장 선점 나서
유연근무제 등 근무환경 개선도

게임업계가 2018년에도 모바일 게임 전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해부터 ‘빅3’로 꼽히는 대형 게임사를 포함해 중견 업체까지 모바일 게임 대작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밤낮없이 몰두하며 일하는 기업 문화도 근무환경 개선안 등을 통해 탈바꿈할 전망이다.

◆넥슨·넷마블·엔씨 ‘빅3’ 새해 모바일 신작 정면대결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넷마블·엔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가 연초부터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리니지’ 등 지식재산권(IP)에 강점이 있는 엔씨소프트는 올해 ‘리니지2M’, ‘아이온 템페스트’, ‘블레이드앤소울2’ 등을 내놓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리니지M’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도 기존 IP의 이용자 기반을 흡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지난해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게임즈는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이카루스M’ 등을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한다. 특히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은 외부 IP를 이용했지만 완성도 높은 기술을 적용해 기대작으로 부상했다.

넥슨은 이달에만 인기 만화 IP를 활용한 ‘열혈강호M’, ‘야생의 땅: 듀랑고’ 등 모바일 게임 2종을 출시한다. 열혈강호M은 오는 11일, 야생의 땅: 듀랑고는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빌, 퍼블리시 등 중견 게임사의 신작도 있다. 게임빌은 오는 12일 개발 인력



올해 출시 예정인 ‘리니지2M’ 대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100여명을 투입한 ‘로열블러드’ 출시를 앞두고 있고, 퍼블리시는 자사 인기 게임 ‘검은사막’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인기 만화 출판사 DC코믹스의 IP를 기반으로 한 ‘DC언체인드’를 내놓는다. 카카오키페는 인기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의 정식 후속작인 ‘그랜드체이스 포 카카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밤낮 없던 근무환경, 새해부터 바뀐다

그간 말쑥했던 기업문화도 대형 게임사 위주로 바뀐다. 넥슨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운영정책에 ‘상당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을 도입한다.

넥슨 관계자는 “이용자와 최접점에서 마주하는 상담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상담사에게 욕을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면 최대 30일간 게임이동을 제한한다.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운영정책 도입을 통해 상담사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1차로 경고조치와 함

께 상담이 중단된다. 재발시 2차로 3일간 게임이용 제한 제재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욕설, 성희롱, 모욕, 인격침해 등이 반복되면 게임이용이 7일간 제한된다. 제재 누적일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중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직원이 근무 시간과 일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우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출퇴근제(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범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유연 출퇴근제가 도입되면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개인이 출근 시간을 선택해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한 주의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다른 주의 근무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체계화하는 등 게임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넷마블은 지난해 2월부터 야근과 휴일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실시했다. 지난해 게임 업계는 강도 높은 철야와 휴일 근무 등으로 직원이 돌연사,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슈가 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의 경우 기존 기업과 달리 역사가 짧고, 개발자들이 신작 개발에 밤낮없이 몰두하는 문화가 남아있어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이 뒤쳐진 부분이 있다”며 “대형 게임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게임 산업도 점차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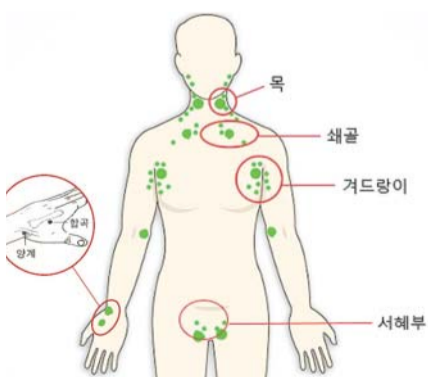
“겨울철, 마사지로 뇌졸중 예방하세요”

바디프랜드·메디컬R&D센터

바디프랜드와 자사 메디컬R&D센터가 겨울철 자주 발병하는 뇌졸중 예방 마사지법을 4일 공개했다. 메디컬 센터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전문의가 안마의자의 의학적 효과를 실험하는 하면서 관련 특허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혈류의 속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또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이물질이 쌓인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혈액순환은 간단한 지압마사지로 가능하다.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각을 이루도록 세우면 엄지 뒤쪽으로 힘을 두 개가 돌출된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혈이 양계혈이다. 합곡혈은 엄지와 집



계손가락의 뿌리가 만나는 손등 안쪽 부위를 말한다. 이 두 혈을 반복해 지그시 눌러주면 혈압 안정에도 도움 된다.

또 다른 마사지법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 림프 마사지는 림프액의 원활한 순환으로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이 정체가 없이 흐르도록 돕는다. /임현제 기자 ihj@

CJ헬로, 차세대 케이블TV 서비스 개시

(알래스카)

CJ헬로 헬로TV가 차세대 케이블TV(UI/UX) 서비스 ‘알래스카’를 전국 23개 케이블방송(SO) 권역에 2018년 새해부터 전면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헬로TV 고객들은 알래스카 UI(사용자화면)를 이용할 수 있고, 헬로TV는 데

이터 기반 케이블TV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알래스카는 케이블TV가 개척해야 할 ‘위대한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CJ헬로는 4개 사업부서와 외부 빅데이터 분석가, UI·UX전문가, AI전문가, 인지과학자

등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2년여에 걸쳐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우선 TV화면(UI)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인 ‘스마트 심플’로 변화한다. 고객 분석을 바탕으로 메뉴와 콘텐츠 구성을 변경한다. ‘가로 UI’ 디자인을 도입해 대형 TV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온다.

메뉴 간 이동도 쿼브 브라우징, 하위메뉴 미리보기 기능 등을 도입해 간편해졌다. /김나인 기자